

2009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대내외 정책 전망

북한 연구 실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에서 나온 대로 금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의 핵심 단어는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이다. ‘혁명적 대고조’는 대외 개방 보다는 50년대 천리마식의 노동력 동원을 통한 자력갱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요소의 외 부적 수혈이 감소됨에 따라 폐쇄적 노력동원으로 경제회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혁명적 대고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자면, 내각이나 군보다도 당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신년 공동사설에서 ‘새로운 총공격전’, ‘전인민적 총공세’, ‘천리마 대고조’, ‘대혁신, 대비약’, ‘비약의 폭풍’, ‘21세기의 새로운 대고조의 역사’ 등의 구호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목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에서 내각의 역할이 축소되고 효율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당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책의 전반 내용도 ‘혁명적 대고조’식이 나올 때 마다 강조되는 집단주의와 자력갱생,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 ‘경제사업의 내각 집중’을 대신하여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거나 강성대국의 문패를 단다는 등의 낙관론을 표명하고 있으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청사진이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관련 특징 중 하나는 ‘대외경제관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2009년도에 대외경제관계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중국경제도 침체이며,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이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으로 전력, 석탄, 금속, 철도수송을 앞장 세워왔으나, 금년에는 이중 금속을 따로 분리하여 앞장세우고 있다. 이는 전력 부문 수력발전소 건설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석탄은 금년도에는 중국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적 대고조’는 군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쳤다. 선군정치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면서도 ‘선군혁명노선’ 등과 같은 ‘선군’식 용어 대신 ‘선군조선’, ‘선군의 길’, ‘선군의 기치’ 등이 사용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군대와 국방공업에 관한 부분이 2008년에는 경제정책 앞에 위치하였으나, 금년에는 경제정책 뒤로 밀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금년 공동사설은 어느 해 보다 내부결속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당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자기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외부문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강조함으로써 핵문제 돌파구를 위한 대미관계에 적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세적인 외교’를 통해 이른바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대한 일체의 언급과 비난을 중단한 데 반해 대남관계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당분간 북한의 대남 강경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완전단절은 관계 회복 시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자칫 북한이 소중히 여기는 남북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남한 내 여론의 역풍 가능성과 북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반기 이후 북·미관계의 이벤트성 성과,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남북관계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북핵문제의 급진전은 쉽지 않으나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 등 일정수준의 북·미관계 진전 이후 실리차원에서 적극적인 대남접근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대일접근을 통해 실리를 확보하거나 남한을 더욱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시장단속과 배급제 부활 등으로 금년도 춘궁기에 지역별 기아사태가 발생하고 세계경제난의 여파로 대중국 수출 급감 등 경제난이 심화될 경우 북한의 대남접근은 보다 적극성을 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금년 북한은 체제결속을 최우선 목표로 당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보수적인 대내외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미관계에서는 미국의 태도 여부에 따라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대남관계에서도 상반기이후 태도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